

<2017 국민의 선택>

재미와 감동,
의미 다 잡았다!

선거방송의 명가 SBS가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012년 대선부터 기발한 아이디어와 세련된 그래픽으로 선거방송의 명가로 떠오른 SBS는 5월 9일(화) 방송된 <2017 국민의 선택>에서도 후보 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여유롭게 따돌리며 한 수 높은 차원의 선거방송을 선보였다.

우선, 2012년 대선 때 SBS가 개발한 그래픽 표출 시스템 바이폰(VIPON: 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이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SBS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정교하고 세련된 그래픽 기술이 결합된 수십 종의 콘텐츠들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포켓몬 고' 게임을 패러디한 '투표몬', 인기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권좌를 찾아서', 표심을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VR로 확인하는 'VR 오디션' 외에도 컬링과 달리기, 인형뽑기 등으로 묘사한 득표율 CG는 딱딱하고 무거운 선거를 '보는 재미'가 있는 선거로 만들었다. 지역별로 바뀌는 센스 있는 부제와 선곡, 내레이션은 재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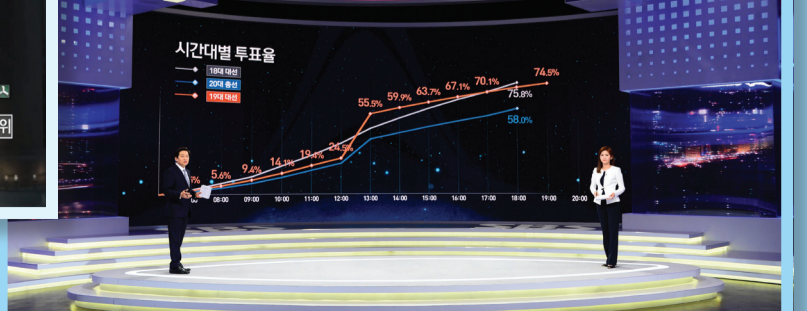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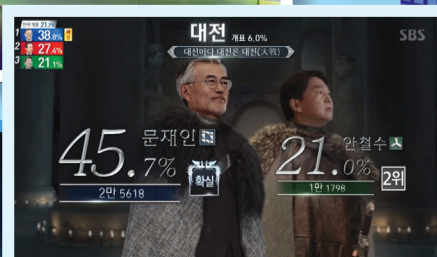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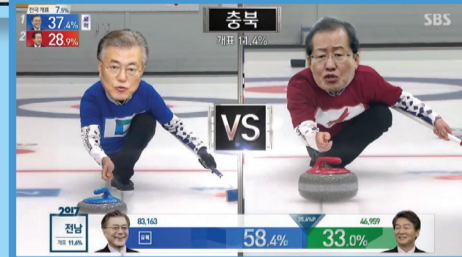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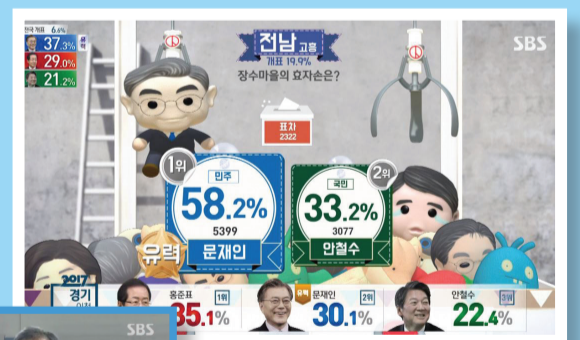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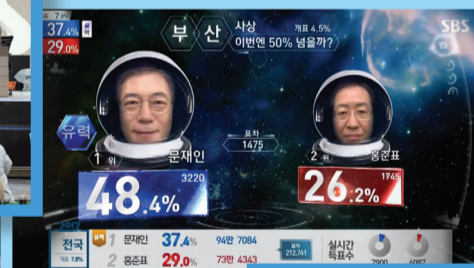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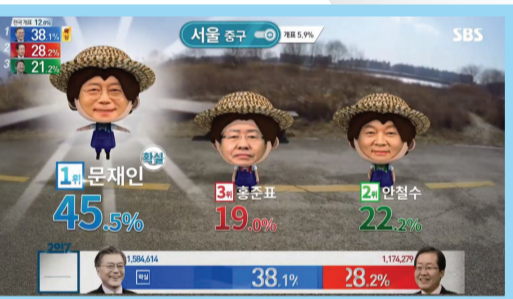
또 이 시각 현재 지역별 투표율을 전한 '국민투표단'과 '국민 걸로 투표로가 간다'는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다. '국민투표단'은 광부, 청소년노동자, 시장 상인, 마트 계산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생업의 현장에서 투표율을 전해주어 공감대를 형성했고, SBS 개표방송의 마스코트 '투표로'는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소가 밀집한 경북, 지진이 난 경북, 서문시장 화재가 있었던 대구, 세월호 아픔의 현장인 전남 등 치유가 필요한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위로했다.

또 SBS는 'SNS 투표 인증샷'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짚어주며 국민 동참을 유도했다.

개표방송 외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배성재 아나운서와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쇼, 장미여관 등 뮤지션과 양희은이 함께 하는 광장 콘서트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젊은 층을 겨냥한 이런 시도는 출구조사 발표 시점의 2049 시청률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양한 콘텐츠를 쉴 새 없이 쏟아내 지루할 틈이 없었던 <2017 국민의 선택>은 선거에 무관심한 시청자도 즐기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문재인 털옷 입고 드래곤 탄 순간부터 SBS 채널 고정함... 울 할머니도 보시는데 진짜 미침", "완전 짬나여. 개표는 스브스가 괜찮음", "선거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축제가 돼가는 것 같음. 완전 좋아요", "SBS 개표방송 완전 감동적이에요. 노래도 그렇고", "SBS 개표방송 정성 짬다", "SBS 저거 기획한 사람...대단", "SBS 선거방송팀 영혼을 갈았네. 월급 더 줘야 함" 등의 댓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뜨겁게 호응했다.

윤춘호 선거방송팀장은 "이번 선거방송에는 본부장을 지낸 고참 PD부터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된 새내기 기자들, 그리고 외부 작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내의 인력이 참여했다. 목표는 하나였다. 20-49 시청률 1위와 경쟁사 압도! 그 목표를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계급장을 떼고 토론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가 적잖은 산통을 거친 끝에 '작품'이 되어 나왔다.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휴일도 없이 강행군을 계속하고 철야를 마다하지 않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정글의 법칙 와일드 뉴질랜드>

‘버럭’ 이경규, 정글에서도 ‘눅방’ 가능할지에 관심 집중



김병만을 비롯해 강남, 이경규, 유이, 에이핑크 정은지, 씨스타 소유, 박철민, 성훈, 슈퍼주니어 신동, 갓세븐 마크, 이재윤, 마이크로닷, 아나운서 김환이 출연하는 <정글의 법칙 와일드 뉴질랜드>가 5월 19일(금) 첫 방송된다.

수많은 영화에서 상상에서나 존재할 법한 환상의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는 뉴질랜드는 실제로 빙하부터 화산, 사막, 원시림, 고원, 바다, 그리고 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다. 이번 <정글의 법칙 와일드 뉴질랜드> 편을 통해 뉴질랜드 북섬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1,000km가 넘는 대장정에 도전하게 된 31기 병만족은 뉴질랜드의 와일드함에 제대로 당했다.

뉴질랜드에 대해 환상을 갖고 현지로 날아간 출연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날씨로 인해 무자비한 자연의 혹독함을 맛보아야 했다. 시속 130km의 강풍과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비 때문에 고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사냥 중 갑자기 나타난 식인 상어로 인해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이경규라는 인물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병만족의 모습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다. 여성 멤버인 유이, 정은지, 소유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면에서 뿔어져 나오는 와일드함을 유감없이 선보였고, 몸짱 훈남 배우 성훈과 이재윤은 ‘성난 근육’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갓세븐의 마크와 래퍼 마이크로닷은 독특한 막내의 모습으로 매력을 뽐냈고, 거친 입담으로 정글을 사로잡은

박철민, 신동의 활약도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D한테 속아 정글에 입성한 이경규의 처절한 정글 생존기를 만나볼 수 있다.

연출을 맡은 민선홍 PD는 “작년 말 <연예대상>을 함께하면서 물밑 작업에 들어갔는데 섭외가 결코 쉽지 않았다. 5개월간 ‘낙시광’인 이경규 씨에게 정글에서 가만히 낙시만 하면 된다는 달콤한 말로 끊임없이 회유했고, 결국 촬영이 임박했을 때 이경규라는 대어를 낚는 데 성공했다”고 섭외 비화를 들려주었다. ‘눅방’으로 유명한 이경규가 과연 혹독한 뉴질랜드의 정글에서도 눅방을 펼쳤을지 궁금증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글의 법칙 와일드 뉴질랜드>는 5월 19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두시탈출 컬투쇼> 또 기록 경신... 11년 연속 청취율 1위 <김영철의 파워FM>은 5위로 도약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가 2017년 2라운드(4월) 청취율 조사에서 1위의 기록을 이어갔다. 무려 11년째 1위다.

5월 1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17년 2라운드(4월) 주요 프로그램별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는 10.9%(평일 점유율/주말 14.2%)의 청취율로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위(<김여준의 뉴스공장>)와 4.4%p 차이로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

2006년 5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두시탈출 컬투쇼>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DJ 정찬우·김태곤 콤비의 화려한 입담과 청취자들의 기상천외한 사연은 전 국민에게 웃음폭탄을 전달하며 오후 2시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11년 동안 ‘대한민국 라디오 전체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컬투쇼> 스스로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한편,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5.6%)도 전체 청취율 순위 5위로 꺾충 뛰어올랐다. 지난 2017년 1라운드 15위에서 무려 10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최근 ‘따라릉’ 음원을 발표한 DJ 김영철은 멜론과 엠넷 트로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김영철의 파워FM>을 방송 6개월 만에 전체 5위로 끌어올리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채널별 청취율 순위에서 SBS 파워FM이 9라운드 연속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파워FM은 TOP 20 프로그램 안에 총 5개의 프로그램을 포진시키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채널’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라디오 청취율 2017년 2라운드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1.8%p다.



김기수의 <예살그살> 누적 조회 수 3천5백만 돌파 ‘모비딕’의 초대박 파워 콘텐츠로 등극

SBS 모바일 콘텐츠 ‘모비딕’의 뷰티 프로그램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이하 <예살그살>)의 인기가 뜨겁다.

<예살그살>은 ‘댄서 킴’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기수가 화장을 못하는 일명 ‘똥손’ 여성들을 위해 유용한 메이크업 팁을 전수하는 모바일 전용 뷰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12월 28일 첫 선을 보인 이후 2개월 만인 2월 말경 누적 조회 수 1천만 뷰를 돌파한 데 이어, 3월 말 2천만 뷰, 4월 말 3천만 뷰, 5월 10일(수) 현재 3천5백만 뷰를 넘어섰다. 모바일 콘텐츠 증가 속도로는 유례없는 기록이다. 또 편당 평균 조회 수는 180만 뷰에 육박한다. 화차 별 조회 수가 가장 높았던 편은 눈썹(352만), 레드 립(296만), 다크 서클(282만), 속눈썹(236만), 헤어라인(231만) 등의 순이다.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부위별 메이크업 팁들이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예살그살>의 장점은 실용도 높은 ‘꿀팁’을 전수한다는 점이다. 2분~3분 사이의 짧은 시간에 ‘대방출’되는 김기수의 ‘권법’들은 누구라도 따라해 보고 싶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다. 김기수의 유쾌한 입담도 빼놓을 수 없다.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김기수의 찰진 진행과 중독성 강한 ‘잇츠~’ 말투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작진(‘모비딕-방송국에 사는 언니들’)은 “<예살그살>을 향한 뜨거운 반응에 감사하다. 5천만 뷰를 돌파할 때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의 메이크업 실력은 물론, 독설과 유머가 난무하는 현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unnieya>)과 모비딕 유튜브, 피키캐스트, 네이버TV캐스트, 판도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 8관왕 쾌거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4월 28일(금) 열린 ‘제50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SBS가 8관왕에 올랐다. SBS가 1994년부터 동 대회에 출품한 이래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이다.

SBS는 <TV 동물농장> ‘투견’ 편과 <동상이몽 관찮아 관찮아> ‘만능 알바 우도 해녀 박수아’ 편이 플래티늄상을 수상했다. 또 <영재발굴단>, <불타는 청춘>, <인생게임-상속자>,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모자 성폭행 사건’, 광복 70주년 특집 <최후의 심판>, 설 특집극 <영주>가 금, 은, 동상을 휩쓸어 모두 8개 프로그램이 8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부문 플래티늄상을 수상한 <TV 동물농장> ‘죽음의 링에 오르는 투견을 구하라’ (연출: 이덕건, 전대진)는 참혹한 투견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여기서 구조한 17마리의 투견들이 공격성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TV스페셜 가족/어린이 부문 플래티늄상을 받은 <동상이몽 관찮아 관찮아> ‘만능 알바 우도 해녀 박수아’ 편(연출: 서혜진)은 이혼과 채무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돕겠다는 책임감으로 해녀에서부터 승마, 마트,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섭렵하는 주인공의 씩씩한 모습이 진한 감동을 주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계급’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생게임-상속자>(연출: 최상호, 김규형)는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 부문에서, 최민수, 한은정, 김희정 등이 출연, 아름다운 경북 영주를 배경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담아낸 2016 설 특집극 2부작 <영주>(연출: 주동민)는 TV스페셜 드라마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에서 <영재발굴단>(연출: 황성준, 박지은) ‘만 3세에 1차 방정식을 푸는 슈퍼 베이비 백강현’과 ‘입시 앞에 찾아온 미술 영재의 사춘기’ 편이 은상을 수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모자 성폭행 사건’ (연출: 안운태)은 탐사 저널리즘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불타는 청춘>(연출: 이승훈)이 엔터테인먼트 부문 동상, 광복 70주년 특집 <최후의 심판>(연출: 황승환)이 TV스페셜 다큐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휴스턴 페스티벌은 뉴욕, 반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최대의 TV 전문 페스티벌 중 하나로,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레미상(Remi Awards)으로 불리는 이 상은 북미에서 에미상, 토니상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다.



SBS 스포츠

이순철-정우영 콤비, 최고의 해설자/캐스터상 영예



정우영 캐스터



이순철 해설위원

정우영 캐스터와 이순철 해설위원이 2017년 최고의 중계진으로 선정됐다. 두 사람은 4월 25일(화)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제3회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코리아’에서 전문 심사위원단과 팬들이 뽑은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 스포츠 해설위원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번 수상으로 이순철-정우영 콤비는 명실공히 최고의 프로야구 중계진임을 확인했다. 국가대표팀 코치 등을 역임한 이순철 해설위원은 명쾌하면서도 솔직한 입담으로 야구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 왔다. 정우영 캐스터 역시 차별화된 내용과 화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SBS스포츠는 스포츠미디어 방송매체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 주최하는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코리아’는 대한민국 유일의 스포츠마케팅 시상식으로, 올해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미운 우리 새끼> ‘백상예술대상’ 예능 작품상



<미우새> 광승영 PD

5월 3일(수)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미운 우리 새끼> (연출: 광승영)가 예능 작품상을, <낭만닥터 김사부>의 유인식 PD가 연출상을 받았다. 또 개그맨 양세형이 <양세형의 쏘터뷰>로 남자 예능상을, 배우 김민석이 <닥터스>로 남자인연기상을 받았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광승영 PD는 출연자와 제작진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하며 “늘 이번 주가 마지막 회라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들과 만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JTBC 플러스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는 백상예술대상은 영화와 TV를 아울러 제작진·출연자에게 시상하는 종합예술상이다.

<SBS스페셜>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YWCA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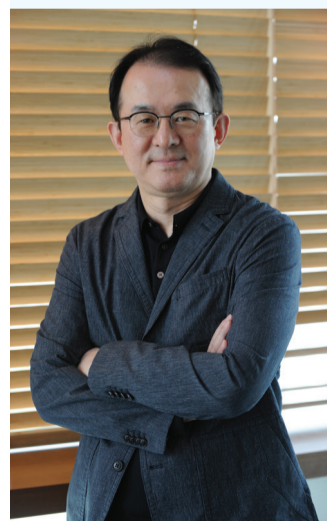
<SBS스페셜> ‘잔혹 동화,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연출: 이운민)가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성 평등 부문 상을 받은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는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혐오와 폭력의 본질을 파헤치고, 여성들이 겪는 공포와 불안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해 우리 사회의 성 인지 감수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4월 21일(금)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수진 외주 조연출, 이운민 PD



콘텐츠파트너십팀 김하정 선임PD 안식년



콘텐츠파트너십팀의 김하정 선임PD가 6월 1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가 내년 5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한다. 김하정 선임PD는 1991년 영화부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SBS의 ‘영화전성시대’를 이끈 외화 더빙 연출의 전설로서, 2006년부터 3년간 마지막 영화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외주팀과 콘텐츠파트너십팀을 거치며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최근까지 <열린TV 시청자세상> 담당 PD로 활동했다.

안식 휴가 중에는 중국의 대학에서 여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



“입사 한 달만의 특종은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 보도본부 시민사회부 이세영 기자

나의 네 번째 명함, SBS 기자

취직 3년 차에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스물넷, 지역 민방 기상캐스터가 됐고 스물다섯,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물여섯, 사표를 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어섭니다. 민방에서 매일 저녁 뉴스를 진행하던 1년, 기자 선배들을 보며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 있고 싶단 생각이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 내 생각을 말과 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국회 도서관 구내식당을 전전하며 ‘혼밥’한 지 반년, 몸담았던 지역 민방의 신입 기자 공채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해 가을, ‘SBS 시민사회부’라 적힌 제 인생 네 번째 명함을 받았습니다. 기자를 꿈꾸기 시작한 때부터, 가장 갖고 싶었던 명함이었습니다.

첫 출입처는 ‘청담동 고급 미용실’

서울에서의 첫 기자 생활. 취재원도 없고, 길도 잘 모르는 제게 넓어진 ‘나와바리’는 처음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사건 테스크가 제게 내린 첫 시사는 매일 아침저녁, 청담동 고급 미용실로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 원장이 일하는 곳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비밀에 싸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기 위해섭니다. 친해지면 한마디라도 해줄까 싶어 머리 손질도 직접 받았

습니다. 끝만 다듬었을 뿐인데 11만 원! 하지만 원장은 묵묵 부담이었고, 다음날 또 찾아가자 안쓰러웠는지 손질 비용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민머리만 남고 소득은 없겠다 싶어, 2주간 원장의 출퇴근길을 동행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손난로와 커피를 대령하며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 손질을 받았고, 긴박한 상황에 맞춰 흐트러진 모양을 연출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입사 이후 제 첫 특종이자 12월 6일, <8 뉴스>의 톱이었습니다. 보도 직후 쏟아지던 선후배·동기들의 격려 문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칩니다.

‘혼자’ 가 아닌 ‘우리’가 하는 일

제 이름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어디까지나 사건팀이 함께 취재한 겁니다. 방송 기자에게 ‘협업’이 중요하단 걸 이곳에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리포트 하나 100% 제 힘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면 동료가 10초짜리 인터뷰를 대신하려 한 시간 거리를 가고, 업무가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 대신 편집을 해주기도 합니다. 삼십분, 한 시간 분량 인터뷰 워딩을 묵묵히 풀어주는 스크립터 분들도 있습니다. 바이라인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 하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직하기 전 ‘SBS 뉴스는 왜 때깔이 다를까’란 생각을 했는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비결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생각에 있었습

니다. 덕분에 저도 두 번의 사내 특종상과, 한 번의 기자상을 탔습니다. 부족한 제게 우리 팀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나의 다섯 번째 명함은...

이곳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고,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전해주고 싶었고, SBS 뉴스의 지향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기자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뛰어가고, 타인의 삶 깊숙이 물어볼 수 있는 건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무거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동료들에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기자, 취재원들에게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자이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갖고 싶은 명함입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여러분, 많이 가르쳐주세요.



공연 전시 가정의 달에 되새기는 엄마의 사랑 <엄마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를 연극으로 만든 <엄마 이야기>(원제: The Story of a Mother)가 4월 29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엄마 이야기>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엄마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모성을 이야기한다. 국내에서는 2014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 첫 회, 첫 장면에서 극의 전개를 암시하는 메인 테마로 등장한 바 있고, 그림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안데르센의 걸작에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 ‘레이디 맥베스’, ‘세일즈맨의 죽음’을 연출한 베테랑 연출가 한태숙, 아동청소년극 전문가 김숙희 예술감독이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가정의 달 5월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엄마 이야기>는 기존의 아동극과는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한다. 절제된 무대와 섬세한 움직임의 오브제, 환상적 음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성’의 주제와 어우러져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팝 전문 프로그램 김주우의 팝 스테이션(POP STATION)

파워FM(수도권 107.7MHz) 매일 오전 03:00-05:00

‘여기는 <팝 스테이션>,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매일 새벽 <팝 스테이션>의 문을 연 지 어느새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방송 시간대가 이른 새벽이라 청취자 참여도가 낮을까봐 지인 찬스(?)를 써가며 진행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미처 다 못 읽어드릴 정도로 사연이 많이 오고 있어서 신이 납니다.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새벽이지만 해외는 프라임시간대라 더 고맙습니다. 또 <팝 스테이션>을 들으면서 팝송에 흥미가 생겼다는 청취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팝돌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어서 보람도 느끼고 힘도 납니다.

<팝 스테이션>은 팝송을 감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팝과 팝스타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가 궁금해 하는 가사의 내용이나 영어 표현을 매일 짚막하게 짚어보는 건 덤이고요. 월요일엔 테마를 정해서 그에 어울리는 팝송 5곡에 순위를 매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엔 팝스타 한 명을 정해서 깊게 파헤치는 시간을, 그리고 수요일엔 그 주의 빌보드 차트를 훑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잘 알지 못했던 팝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금요일엔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팝, 토요일엔 리메이크 팝으로 구성하고, 일요일엔 특정 연도를 정해서 그때로 돌아가는 팝 타임머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팝 스테이션>을 유연히 한번 듣게 되더라도 그 한 번의 내용과 음악이 가능한 한 쉽고 다채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제작진과 늘 상의하면서 선곡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의도를 알아주시는 건지 청취자들이 다양한 연대와 장르의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선곡 리스트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처음엔 조곤이나 당직 근무를 한 사우들 위주로 반응이 들어왔는데, 주변에 점점 잘 듣고 있다는 분들이 많아져 뿌듯합니다. 사실 방송하면서 좋아하는 팝을 실컷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팝송과 함께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여유롭게 하루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김주우의 팝 스테이션>에서 여러분의 답송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팀 김주우

